

그리스도인 09.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

Christian 09. If you are a Christian, you now ...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당신에게는 갈망하는 것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는 것을 당신은 원하게 된다. 어떤 것들을 원하게 될까?

1. 첫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성경적인 교회에 속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가정과 같다. 태어난 아기는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버려진 아기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들이 가정을 통해 자라가듯,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 성장한다. 교회가 필요하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의하면,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삼천 혼들이 더해지더라.'라고 했다.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믿었다는 말이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더해졌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베드로의 설교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더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마다 성경적인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한다.

2. 둘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경배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쓰여 있다. '오직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요 4:23)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경배하지 않는다. 즐겁게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회중 경배를 중요하게 여긴다. 일반적으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에 모이는 이 경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특히 일요일은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집중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은 가정경배를 기뻐한다. 또 개인적인 경배도 기뻐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

나눔을 경배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기뻐한다.

3. 셋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젖과 같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에 이 말씀은 필수적이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잘 먹지 못하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힘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교회 강단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학교에도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한다. 전에는 무관심했던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4. 넷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침례에도 순종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침례를 받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행 8:36). 침례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공개적 간증이다. 교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다시 말해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침례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침례에 순종하고자 한다.

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한다. 주의 만찬 모임이 주(Lord)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기에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들을 용서 받았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만찬에 사용되는 빵이 그분의 찢긴 몸을 보여주고 만찬에 사용된 잔이 그분의 흘린 피를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은 그 만찬을 기뻐하며 그것에 참여해서 주님을 기념하고자 한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이런 원함들이 있다. 첫째 성경적인 교회에 속하길 원하고, 둘째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며,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넷째, 침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